

# 무정 숙청의 정치적 원인과 무정의 대응

## 안 문 석\*

- |                   |                                |
|-------------------|--------------------------------|
| I. 머리말            | IV. 숙청의 정치적 원인: 북한의 공간자료와 그 이면 |
| II. 무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 | V. 무정의 대응                      |
| III. 한국전쟁 중 전격 숙청 | VI. 맺는 말                       |

### 국문요약

북한이 공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무정을 숙청한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평양을 방어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사람을 총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대대적인 후퇴 중, 명령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정이 적은 병력으로 평양을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대열 이탈자는 즉결처분하라는 김일성의 명령이 하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정이 무단이탈자를 총살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다. 결국 전쟁 중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무정에 대한 숙청은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보다는 김일성 세력이 패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동시에 오랜 정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숙청에 대한 무정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무정이 일찍이 1948년 중반 즈음에 지지 세력을 모아 김일성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미군 정보보고서의 보고

도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무정은 오히려 전격 숙청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제거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연안에서 귀국하던 도중 선양에서 국민당의 공격을 받았을 때, 홀로 무장트럭을 타고 탈출하면서 연안파 내부에서 인망을 상당 부분 잃게 되었다. 둘째, 연안 시절부터 있었던 연안파 내부의 분열로 무정이 자파 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전형적인 무인기질의 무정은 정국을 파악하고 소련과의 연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전략에 능하지 못했다. 이런 배경 속에 이루어진 무정에 대한 숙청은 북한정치사에서 이후 이루어진 허가이, 박헌영 등에 대한 숙청과 이를 기반으로 한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의 출발선이라는 입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무정 숙청, 연안파, 김일성 체제 전복, 김일성 유일체제, 명령 불복종, 군벌주의적 만행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 무정은 김일성 못지않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다.<sup>1</sup> “무정장군 만세”도 수없이 들을 정도였다. 중국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함께 활동하던 연안파의 지도자 무정은 만주에서 항일빨치산 활동을 하던 만주파를 대표하는 김일성, 국내 공산 세력의 중심 오기섭, 민족주의 세력의 대표 조만식 등과 함께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 국가 건설 전략을 놓고 경쟁했다. 초기에는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에서 간부부장으로 활동하며 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1946년 이후에는 북한군의 창설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 북조선보안간부학교 심사위원장, 보안간부훈련소 포병 부사령관 등을 거쳐 6·25 전쟁 당시에는 조선인민군 제2군단장을 맡았다가 김일성에 의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숙청되었다. 숙청 후 중국에서 요양을 하다가 북한으로 들어가 1951년 사망했다. 조선인민군 39호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던 도중 숨졌다.<sup>2</sup>

북한에서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숙청된 인물은 조만식, 오기섭, 허가이, 박현영, 김두봉 등 많지만, 무정의 숙청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무정이 숙청되었나 하는 것이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지만 실제 숙청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밝혀져야 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북한은 6·25 전쟁 당시 명령 불복종과 부하에 대한 불법적 처형을 근거로 무정을 숙청했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김일성이 경쟁자를 제거하고 그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 대한 깊은 관찰은 이후 김일성 유일체제 성립의 전단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는 무정이 왜 숙청에 대해 반발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나 하는 것이다. 물론 김일성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이겠지만, 당시의 구체적인 역학 관계가 어떤 양태로 되어있었기에 무정이 대응을 못하고 몰락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안 시절부터의 연안파 내부의 갈등, 그 속에서의 무정의 입지, 무정에 대한 조선의용군의 인망 등에 대해 면밀한

<sup>1</sup> 무정(武亭)의 본명은 김병희(金炳禧)이다. 한동안 본명이 김무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중국 지린성(吉林省) 룡징(龍井)에 사는 무정의 8촌 조카 김하수(金河壽)가 무정의 본명을 김병희로 밝히면서 비로소 본명이 알려졌다. 무정이라는 특이한 이름은 1924년 중국에서 군관학교를 다니던 중 실제 전투에 참가해서 적을 격퇴시키자 이를 기특하게 여긴 그의 상관인 군인을 뜻하는 武(무)자를 넣어 지어준 것이다. 박충걸, “비운의 혁명가 무정의 일생,” 『산동아』, 1993년 3월, p. 509; 조규하 등, 『남북의 대화』 (서울: 고려원, 1987), p. 173.

<sup>2</sup> 윤재인(동북조선의용군 출신, 조선인민군 8호후방병원 군사지도원)의 증언,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 자료.

관찰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취지는 남북한과 미군정의 자료, 동북조선의용군 출신들에 대한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중국 팔로군의 포병단장 출신으로 조선의용군의 총사령관을 지낸 무정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비하면 그에 대한 연구는 적다. 독립운동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연안파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그나마 조금씩 진행되어 왔지만, 무정의 북한에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공산주의자였고, 김일성과의 권력 투쟁에서 패했고, 6·25 전쟁에 인민군 고위 장성으로 참전한 그에 대해서 지금의 한국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북한에서는 조기에 숙청된 인물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초기 북한정치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인 만큼 무정을 중심으로 그가 제거되는 과정과 그의 대응을 조명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무정의 숙청과정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북한의 공간자료에 나타나는 숙청의 이유를 살펴봄에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 다음 장에서는 무정이 숙청 이전에 자파를 결집하려는 노력을 보였는지, 아니면 무력하게 제거되었는지, 후자라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상술하고, 결론의 장에서는 무정의 숙청이 갖는 북한정치사에서의 의미를 간략히 서술한다.

## II. 무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

무정은 북한에서 조기에 숙청된 인물이다. 권력투쟁에서 졌고, 북한의 역사에서 조기에 사라졌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무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그의 북한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중국에서의 독립운동과 관련한 연구들은 존재하지만, 그것도 독립적인 연구 성과물이 아니라 조선독립동맹이나 조선의용군 연구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도이다. 한국독립운동사나 북한정치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특이할 만큼 연구 대상에서 떨어져 있었다. 이처럼 무정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이유는 첫째, 자료의 제한성 때문이다. 무정에 대한 자료는 일제의 사찰자료와 조선의용군 대원들의 증언, 일부 중국 자료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런 만큼 시기상으로는 해방 직전의 정보를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이유는 무정이 북한에서 조기에 숙청당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자료에서 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그를 비난

하고 질책하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무정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는 아님에도 몇몇 연구는 무정의 활동과 숙청의 배경, 연안파의 분열 원인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석의 연구<sup>3</sup>는 무정이 해방 직후 연안파 세력을 공고하게 결집시키지 못한 이유를 일정 부분 설명해주고 있다. 연안 시절과 최창익·박일우 등과의 갈등, 조선의용군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무정이 연안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종석의 또 다른 연구<sup>4</sup>는 6·25 전쟁 당시 중국군이 개입하고 조중 연합사령부가 구성되어 북한군에 대한 작전권이 중국군으로 이전된 것이 오히려 김일성으로 하여금 내정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었고, 무정·허가이·박현영에 대한 숙청도 가능하게 했다면서 중국군 개입과 김일성-무정 사이의 역학 관계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이 중국과 러시아에 살아있는 북한의 주요 인물들을 면담해서 정리한 성과물<sup>5</sup>은 무정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상당히 밝혀 주었다. 특히 입국과정에서의 무정과 조선의용군 대원 사이의 일화, 간부부장 당시 무정의 인사 행태 등과 관련한 증언은 이후 무정이 연안파 내에서 지도자로 부상하지 못한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광서의 연구<sup>6</sup>는 해방 직후 김일성의 경쟁자들에 대해 분석하면서 소련군정이 무정을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내용 등 당시 북한정치의 주요 행위자이었던 소련군정의 무정에 대한 적나라한 인식을 제시해 주고 있다.

스칼라피노·이정식의 저술과 김준엽·김창순의 연구는<sup>7</sup>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형성과 발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무정이 중국 관내(산하이관(山海關) 서쪽)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중심지도자로 부상하는 과정, 해방 직후 무정이 만주파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사라져 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 밝혀주고 있다. 김창순의 해방정국 관찰기<sup>8</sup>는 무정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중심으로 한

<sup>3</sup>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 2000), pp. 406~411.

<sup>4</sup>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 (2001).

<sup>5</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sup>6</sup> 기광서, “해방 후 김일성의 정치적 부상과 집권과정,” 『역사와 현실』, 제48호 (2003).

<sup>7</sup>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2』 (서울: 돌베개, 1986);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 (서울: 청계연구소, 1986).

<sup>8</sup> 김창순, 『역사의 증인』 (서울: 한국아세아반공연맹, 1956); 김창순, 『북한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기술로 소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저자의 주관이 개입된 기술이 많고, '1945년 11월 중순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1비서 김일성, 제2비서 무정·오기섭'이라는 표현 등 일부 잘못된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김일성이 책임비서가 된 것은 1945년 12월 17~18일 열린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이고, 11월 중순 당시 오기섭이 제2비서였던 것은 맞지만 무정은 귀국하지도 못했다. 무정은 12월 13일에 당 제3차 확대집행위에서 간부부장 직책을 맡았다. 한재덕의 저술도<sup>9</sup> 무정과 김일성의 경쟁 관계의 양상을 비교적 소상히 전해주지만, 주관적인 설명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점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무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북한군이나 연안파를 분석한 성과들은 무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왔다. 김용현의 연구<sup>10</sup>는 북한군이 만주파 주도로 형성되었다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북한군 창설에서 연안파의 주요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능을 했다. 장준익의 연구<sup>11</sup>는 전 인민군 작전국장 유성철, 전 인민군 부총참모장 이상조 등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평양 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등 초기 인민군의 형성과정과 6·25 전쟁 직전의 작전 계획 수립 과정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었다. 이런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군부 내에서의 연안파와 만주파의 경쟁 관계, 북한군에서 무정의 입지 변화에 대한 일정한 단서를 제공한다.

정병일의 연안파에 대한 연구<sup>12</sup>는 연안파가 조선신민당을 창당하고 북조선공산당과 합당해서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함으로써 토지개혁과 사회개혁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북한 국가 건설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지연의 저술<sup>13</sup>은 독립동맹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의 항일투쟁, 해방 후 조선신민당의 건설 과정, 그들의 이념 및 활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신민당에 대해 남북한을 통괄한 유일한 정당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선신민당은 남북한을 모두 포괄하려는 의도에서 민족주의 색채가 강한 공산주의를 지향했다고 주장한다.

서동만의 북한체제 형성과정에 대한 방대한 저서<sup>14</sup>는 북한군의 형성과정을 주요 부분으로 다루면서 군이 당과 인민위원회에 대해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

<sup>9</sup> 한재덕, 『김일성을 고발한다』 (서울: 내외문화사, 1965).

<sup>10</sup> 김용현, “북한 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만주사변~한국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sup>11</sup>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sup>12</sup> 정병일,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파 역할』 (서울: 선인, 2012).

<sup>13</sup> 심지연, 『조선신민당 연구』 (서울: 동녘, 1988).

<sup>14</sup>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p. 250~279.

율적인 기관으로 발전했다고 주장, 군과 당과의 관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무정의 북한군 건설에 대한 역할을 직접 다루는 연구는 아니지만, 군부 내에서의 그의 입지를 간헐적으로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김일성의 권력 획득 과정과 그 요인에 대한 연구도 무정을 이해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데, 서대숙의 연구<sup>15</sup>는 김일성의 독립운동, 권력장악 과정을 면밀히 밝혀주고, 특히 김일성 세력이 연안파, 국내파, 소련파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강한 응집력과 조직력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약한 연안파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가운데도 무정의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존재한다. 한홍구는 연구가 미진했던 조선독립동맹에 대한 집중적 연구로 ‘단일적 대중조직 형태의 지역 통일전선’으로서의 독립동맹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핵심 세력이 공산주의자들이었지만 민족주의자들과도 독립을 위한 협력을 모색했음을 보여준다.<sup>16</sup> 이러한 연구는 공산주의자로 조선독립동맹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무정의 민족통일전선 노선을 일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한홍구와 이정식이 펴낸 『조선독립동맹자료: 항전별곡』은 무정이 중국 타이항산(太行山) 일대에서 조선의용군의 총사령으로 활동할 당시의 활약상을 세밀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그 이전의 우파 민족주의 중심의 독립운동연구에 대해 어느 정도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연구들은 무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되지 못할뿐더러 연안파 내부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 무정 숙청의 상세한 과정, 무정의 북한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무정의 활동과 숙청이 북한체제 형성 과정에 미친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연구의 공백 가운데 무정 숙청의 정치적 원인과 숙청에 대한 무정의 대응 부분에 대한 심층 연구에 중점을 둔다.

<sup>15</sup> 서대숙 저,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90); 서대숙 저,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대구: 화다출판사, 1985).

<sup>16</sup> 한홍구,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 Ⅲ. 한국전쟁 중 전격 숙청

무정은 6·25 전쟁이 시작될 당시 특별한 직책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쟁은 만주파와 소련파가 중심이 되어 준비했다. 1950년 6월 20일쯤 전선사령부가 구성되었는데, 직전까지 무정이 맡아오던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에 소련과 김봉룡이 임명되었다.<sup>17</sup> 김광협이 맡은 제2군단이 춘천을 거쳐 3일 만에 수원에 이른다는 작전에 실패하자 무정은 김광협을 대신해 제2군단장을 맡았고, 그러면서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 남진을 계속하다 연합군의 참전으로 후퇴하던 시기에는 평양방어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연합군의 거센 공격을 막지 못한 채 무정은 평양을 버리고 만주까지 후퇴했다. 거기서 패잔병을 추슬러 구성한 제7군단의 군단장을 맡았다.<sup>18</sup>

무정이 7군단장을 맡고 있던 1950년 11월 24일쯤 그동안의 작전과 후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조선인민군 전체군관회의가 열렸다. 10월 19일 중국이 참전하면서 그때까지의 전투를 평가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이 자리에서 2군단의 참모장 김광협, 5사단장 오백룡, 정치부장 박금철이 무정을 비판했다. 평양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초기에 후퇴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 이유였다.<sup>19</sup> 무정의 지휘하에 있던 만주파들이 무정의 과오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무정의 과오를 부하들의 지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단계였다.

실제 숙청은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실행되었다. 대대적으로 무정을 비판하고 전격 연행해서 감금했다. 당시 전쟁의 상황은 중국군이 남진을 계속하는 상태였다. 이 회의에는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군의 고위 지휘관들이 참가했다. 무정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회의에 참석했다.<sup>20</sup>

김일성이 무정을 직접 비판했다. 긴 연설문을 낭독하면서 비판했는데, 김일성이 낭독한 연설은 당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창만이 작성한 것이었다.<sup>21</sup> 김창만은 원래 최창익 계열이었는데, 1943년 최창익과 무정이 조선독립동맹 내부에서 노선 다툼을 벌일 때 무정 쪽으로 돌아섰다. 김창만은 연안에서 무정과 함께 조선

<sup>17</sup> 유성철, “피바다의 비화,” 『고려일보』, 1991년 5월 31일;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p. 381 재인용;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1990), pp. 248~249.

<sup>18</sup> 강상호, “내가 치른 북한 숙청 (7),” 『중앙일보』, 1993년 2월 22일; 한국일보 편,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태』 (서울: 한국일보사, 1991), p. 181.

<sup>19</sup>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서울: 선인, 2010), p. 120.

<sup>20</sup> 고봉기,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서울: 천마, 1989), p. 125.

<sup>21</sup> 한국일보 편,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태』, p. 108.

독립동맹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들어가 초기에 무정을 수행하면서 그를 영웅화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하지만 무정과 김일성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김일성 쪽에 가담했다. 소련의 적극적 지원을 받고 있던 김일성이 절대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선전·선동에 능해 당 선전부장을 거쳐 중앙위 부위원장이 되었다.

김일성이 무정을 비판한 내용 가운데 핵심은 “군대에서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전투를 옹계 조직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한 무정은 제2군단장의 직위에서 철직당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퇴각하는 과정에서 혼란된 상태를 리용하여 아무런 법적 수속도 없이 사람을 마음대로 총살하는 봉건시대의 제왕과도 같은 무법천지의 군벌주의적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sup>22</sup>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지적된 무정의 과오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명령 불복종이다.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전투를 옹계 조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불법 총살이다. 해임 이후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사람을 총살했다는 것이다.

## IV. 숙청의 정치적 원인: 북한의 공간자료와 그 이면

### 1. 명령 불복종의 과오

위에서 본 대로 북한의 공간자료에 나타나는 무정 숙청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북한군 내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면 이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오로 지적된 명령 불복종 관련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이후 대대적인 후퇴 당시 김일성이 평양을 빠져나가면서 무정에게 평양 방어를 명령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양 방어를 못 하고 후퇴한 것은 무정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북한군이 후퇴하면서도 평양을 사수하기 위해 무정을 사령관으로 평양 방어사령부를 설치한 것은 10월 13일이다.<sup>23</sup> ‘평양전투’는 18일 시작되었다. 한국군 1사단과 미군 1기병사단이 평양을 향해 진격했다. 인민군은 보병과 탱크부대로 맞섰다. 무

<sup>22</sup>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 과업(1950.12.21.),”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pp. 139~140.

<sup>23</sup> 『조선전사 26』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79.



정은 유엔군의 후방 산악지대에 병력을 집결시켜 대항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대동강 이북으로 후퇴하면서 강변에 지뢰를 대규모로 설치해 한국군과 미군의 도하를 막으려고도 했다. 강한 유엔군의 공격에 밀려 후퇴하는 상황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통제되는 것이 없었다. 예하 사단간부와 연대장까지 앞다투어 달아났다.<sup>24</sup>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은 대규모 보병과 전차부대로 항공지원까지 받으면서 평양을 공격했다. 결국 한국군과 미군은 19일 동평양의 대동강을 건너 평양을 점령했다. 인민군이 급하게 꾸려진 평양 방어사령부를 가지고 무기와 병력에서 월등 우세한 미군과 한국군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정도 평양을 버리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아도 당시 인민군이 유엔군과 한국군의 대대적인 공세를 막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인민군은 18일 전군에 후퇴명령을 내렸다. 보급로가 끊긴 채 협공을 받게 된 인민군은 통신망도 엉망이 돼 후퇴명령 자체도 사단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9월 28일 서울에서 밀려난 이후에는 지휘체계가 무너져 각자 알아서 후퇴하기에 바빴다. 서울 방어 임무를 맡은 25여단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민족보위상 최용건은 서울을 탈환 당한 뒤 김일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이에 최용건은 25여단장 오기찬을 불러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급장을 뜯어버리기도 했다.<sup>25</sup>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서울 서남부 방위를 맡고 있던 북한군 부대는 105전차사단 소속의 107연대였다. 인천에서 서울로 진격하는 미군을 서울 서남부에서 막고 있었다. 이 부대가 상부 방위사령부와 교신한 문서들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노획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와 지령들에 나타나는 북한군의 실상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있었고, 불안에 떨면서 명령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퇴각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군대뿐만이 아니었다. 9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당조직 점검을 위해 파견되었던 당 중앙 간부의 기록에도 도주에 급급한 지역 당간부들의 실태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sup>26</sup>

이처럼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북한군과 정권기관 상황은 상부의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그나마 일부 전달되는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유엔군과 한

<sup>24</sup> 박갑동 저, 구윤서 역,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울: 바람과 물결, 1988), p. 140.

<sup>25</sup> 한국일보 편,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태』, p. 98.

<sup>26</sup> 하기와라 료 지음, 최태순 옮김, 『한국전쟁: 김일성과 스탈린의 음모』 (서울: 한국논단, 1995), pp. 293~300.

국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서로 목숨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책임을 따지고 책임자를 탓한다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북한 최고지도부가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북한군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달리 한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 성공 이후 사기가 높아진데다 병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9월 30일 당시 한국군 10만 1천여 명, 미군 11만 3천4백여 명이 있었고, 여기에다 기타 유엔군을 합쳐 모두 34만 여 명이 남측의 병력을 형성하고 있었다.<sup>27</sup> 이 병력이 10월 1일 38선을 넘어 대대적인 북진공격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일성 자신도 서둘러 후방으로 퇴각했다. 10월 9일 강계를 임시수도로 정한 뒤, 13일 평양을 벗어났다. 16일 평안북도 옥천에 도착했고, 대유동(지금의 동창)과 창성, 유평을 거쳐 강계의 고산진으로 이동했다.<sup>28</sup> 인민군은 10월 1일 민족보위상 최용건을 서해안방어사령관에, 전선사령관 김책을 동부전선사령관에 임명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서해안방어사령부는 38선 일대의 예비부대와 해안방어부대, 탱크부대, 경비대, 보안대 등을 모두 동원해 서부지역을 방어했다. 동부전선사령부는 38선의 동부에 배치된 예비부대와 낙동강전선에서 후퇴한 부대들을 모아 동부지역을 방어했다. 하지만 사기충천한 유엔군과 한국군이 대규모 부대로 공격해 오고, 북한군은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정이 만주로 후퇴해 7군단을 꾸렸을 때, 북쪽으로 후퇴한 당원이나 청년들은 대부분 7군단으로 모였다. 당원과 민청회원, 여맹회원 등을 데리고 후퇴한 당의 고위 간부들은 이들을 무정에게 넘겨주었다. 이런 조치는 상부의 명령이기도 했다.<sup>29</sup> 전력이 약해 후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방으로 후퇴해 군을 재편하는 작업은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정에게 7군단을 꾸리도록 한 것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고 추후를 기약하겠다는 북한군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내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무정 숙청에 활용했다. 평양을 버린 책임을 온통 무정에게 돌리고 숙청의 첫 번째 이유로 삼은 것이다.

<sup>27</sup>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GPO, 1961), pp. 605~606.

<sup>28</sup> 서상문, 『모택동과 6·25 전쟁: 파병 결정과 개입동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pp. 214~215.

<sup>29</sup> 강상호, “내가 치른 북한 숙청 (7).”

## 2. 군벌주의적 만행의 과오

별오리 회의에서 지적된 무정의 두 번째 과오는 후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사람을 총살하고 봉건시대의 제왕과도 같은 무법천지의 군벌주의적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평양 방어 당시 도망가려는 부하 연대장을 사살했다는 것이다. 무정은 평양방어사령관으로 유엔군과 맞서 싸우려 할 때 도주하는 연대장을 발견하고 “이 장개석 군대보다도 못한 놈”이라 하며 권총으로 병사들 면전에서 사살했다고 한다.<sup>30</sup> 다른 하나는 무정이 후퇴하면서 압록강변 만포에 있는 군병원에서 죽어가는 부하전사를 수술·치료하지 않는 의사를 현장에서 총살한 것이다.<sup>31</sup> 당시 의사는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생부장 이청산이었는데, 치료를 명령하자 그가 바쁘다고 응대했고 이에 무정이 총격을 가한 것이다. 두 가지 이외에도 만주에 들어가 후퇴병력을 수습할 당시 여단장급 지휘관 두세 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한다.<sup>32</sup> 인천상륙작전 직후 대대적인 북한군 후퇴의 와중에서 대대장을 쏘아 죽였다는 설도 있다.<sup>33</sup> 이에 숙청 당시 함부로 총살을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무정이 이러한 행위를 모두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북한군의 상황에서 이를 무정의 완전한 과오로만 보기는 어렵다. 인민군이 남하한 뒤 인천 방어를 위해 만들었던 인천해안방어여단의 정치부장을 지낸 장학봉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낙동강 전선의 방어가 강화되었을 때 상관의 명령을 조국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일보도 퇴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명령이 각 부대에 전달되었다. 자기 마음대로 퇴각할 경우에는 즉석에서 총살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부대별로 민청조직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내가 이 엄숙한 결의문을 위반하였을 시 나는 조국의 엄벌을 받겠다”라고 쓴 뒤 자필서명까지 했다.<sup>34</sup> 특히 군사동원을 기피한 자, 대열이탈자에 대해서는 즉결처분하라는 김일성의 명령도 하달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 명령에 따라 후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총살을 당했다.<sup>35</sup>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한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현장 지휘관들의 재

<sup>30</sup> 박갑동 저, 구윤서 역, 『한국전쟁과 김일성』, p. 140.

<sup>31</sup> 당시 현장을 목격한 박창욱 연변(延邊)대학교 교수의 증언(중국 연지(延吉), 1996년 9월),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 (2001), p. 68 재인용.

<sup>32</sup>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p. 119.

<sup>33</sup> 김성호(중국 연변대학 한국역사연구소장) 인터뷰, 2015년 1월 12일, 중국 연지.

<sup>34</sup> 장학봉, “장학봉,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p. 578~579.

<sup>35</sup> 김창순, 『북한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p. 128.

량권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그러니 무정의 처분이 무단이탈자를 즉결처분한 것이 라면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모두 무정을 숙청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된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무정뿐만이 아니었다. 연안파의 김한중(소장, 사단장), 만주파의 김일(중장,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민족보위성 문화 부상)과 임춘추(강원도당 위원장), 최광(소장, 사단장), 소련파의 김열(소장, 전선사령부 후방총국장), 채규형(최고검찰소 부총장), 남로당계열의 조진성(남강원도당 위원장), 박광희(경기도당 위원장), 허성택(노동상, 남조선 빨치산 조직 책임자) 등도 함께 처벌받았다. 북한지역 국내 공산 세력 가운데는 특수산업 지도국장 최만연, 부국장 정동춘이 함께 처벌받았다.

하지만 무정과 함께 처벌받은 만주파는 추후 모두 복권되어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김일은 군에서 물러나 평남도당 위원장으로 있다가 1952년 8월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되었고, 1954년 내각 부수상, 1972년 정무원 총리를 거쳐 1976년 국가 부주석에 올랐다. 임춘추는 적십자사 위원장으로 좌천되었다가 1955년 당 연락부 부부장, 1966년 당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쳐 1983년 국가 부주석까지 되었다. 최광도 1952년 10월 강건군관학교 교장으로 복귀해 1953년 5군단장, 1958년 공군 사령관, 1963년 인민군총참모장을 지내고 1995년 인민무력부장이 되었다.

만주파가 이후 복권되어 승승장구한 점으로 미루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무정 숙청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만주파를 함께 처벌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그의 권력 기반도 공고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견제 세력이 무력화된 상태라면 그런 형식적인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전쟁에서 패퇴한 이후 박헌영과 허가이로부터 패전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그래서 무정을 숙청하면서 자파의 인물들을 포함시키는 조치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은 명령 불복종과 불법적 즉결 처형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무정을 처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북한에 외부적으로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적인 숙청의 이유는 6·25 전쟁에서의 초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무정에게 전가시키면서, 동시에 김일성의 오랜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sup>36</sup> 시바타 미노루, “김일성의 야망,” 고봉기,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서울: 천마, 1989), p. 142.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이 다른 김일성의 경쟁자들과는 달리 무정에 대해서는 추후 복권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1994년쯤 복권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공식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서 무정이 김일성의 가혹한 비판을 받은 내용이 담긴 북한의 첫 공식문헌은 1952년 11월에 발간된 『조선중앙년감, 국내판: 1951~1952』이다. “다른 실례로 군대에서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전투를 옹기 조직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한 무정은 제2군단장의 직위에서 철직당하였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퇴각하는 과정에서 혼란된 상태를 리용하여 아무런 법적 수속도 없이 사람을 마음대로 총살하는 봉건시대의 제왕과도 같은 무법천지의 군벌주의적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 처단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비겁주의자들과 패배주의자들의 자유주의적 류망 행동이며 아무런 조직 생활도 무시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라고 비판내용을 자세히 적고 있다.<sup>37</sup>

숙청 2년 만에 공간자료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이 내용은 1953년에 발간된 『김일성 선집』 3권에 그대로 실렸다.<sup>38</sup> 이러한 북한의 공식입장이 바뀐 것은 1995년이다. 이 해에 『김일성 전집』 12권이 발행됐는데, 여기에는 위에 인용된 부분이 통째로 빠져있다.<sup>39</sup> 이 문헌의 발간 이전에 북한이 무정에 대해 재평가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무정을 숙청하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러한 재평가에 따라 그의 묘소도 독립운동가·사회주의 건설 유공자 등이 문헌 애국 열사릉으로 옮기게 되었다.

## V. 무정의 대응

### 1. 김일성 체제 전복 계획?

무정은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이라는 독립운동 경력과 북한군 안에 들어와 있던 많은 조선의용군 출신 장교들을 자신의 권력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 세

<sup>37</sup>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판: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p. 29.

<sup>38</sup> 이 내용은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 과업(1950.12.21.),”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pp. 139~140.

<sup>39</sup>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12.21.),”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454.

력이 조직적 결속력과 소련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국을 주도하긴 했지만 무정도 나름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당시 숙청에 대비한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1948년 7월 즈음에는 김일성과의 불화가 계속되었던 만큼 무정도 나름대로 권력투쟁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이 미군정 정보보고서에 비교적 상세히 나타나 있다. 무정이 우선 인민군 내에 지지 세력을 은밀하게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지지자들을 모아 조직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김일성이 주도하는 북한체제를 전복하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전복의 시점을 소련군이 물러가는 시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소련이 김일성을 지원하면서 버티고 있는 한 정부 전복이 어려운 만큼 김일성의 후원 세력 소련이 철수한 이후에나 전복 시도가 의미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보고서는 무정이 초기 북한에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김일성의 질시를 받았고, 이후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한 반면에 무정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자신의 직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소련의 북한 점령 자체에도 불만을 갖게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40</sup> 이 정보의 제공자는 인민군 중좌(중령) 출신으로 어느 정도 고급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계급이었다. 이 정보 제공자가 남쪽으로 내려온 직후 북한은 군 전역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38선 통제도 강화했다. 그래서 이 정보 제공자가 남하한 1948년 7월에 월남한 인민군이 그 전달에 비해 7명 줄었다.<sup>41</sup> 북한이 이 예비역 중좌의 남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의 증언이 무시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정보는 한 사람의 증언인데다, 1948년 중반 즈음에는 최용건이 북한군의 실권을 쥐고 무정을 집중 견제했기 때문에 무정이 구체적으로 쿠데타 계획을 성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미국 측 보고서인 주한미군 사령부 무관사무소의 합동주간보고서(Joint Weekly Analyses)는 무정이 정부전복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가 있지만 실제로 민간이나 군에서 소요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내무국의 감시가 삼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소요나 반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즉 대중적인 리더와 무기·탄약이

<sup>40</sup> HQ, USAFIK, "G-2 Weekly Summary," 6-13 August 1948, p. 33.

<sup>41</sup> Department of the Army, "Joint Weekly Analyses," Staff Message Center, Incoming Classified Message (11 September 1948), p. 7.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sup>42</sup> 결국 무정이 김일성에 대한 반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자파 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작업을 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상에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과 함께 민족보위성이 창설되었을 때에도 민족보위상은 최용건이었고, 무정은 그 아래에서 포병 부사령관을 맡았다. 6·25 전쟁을 위한 작전 계획인 ‘선제타격작전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도 못했다. 여기에는 만주파와 소련파만 참여했고, 연안파는 비밀 누설의 염려 때문에 제외되었다. 총참모장 강건, 작전국장 유성철, 포병사령관 김봉률, 포병사령부 참모장 정확준, 공병국장 박길남 등이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 작성에 참여했다.<sup>43</sup> 무정은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특별한 직책을 맡지 못했고, 제2군단의 작전이 실패하자 제2군단장을 맡아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후퇴 이후 곧바로 그에 대한 문책성으로 숙청되었다.

## 2. 무력한 대응의 원인

### 가. 타격받은 인망

무정은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으로 연안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서도 높은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명예와 권위는 귀국 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무정은 해방 후 1945년 9월 5일 조선의용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귀국을 위해 만주로 향했다. 박일우와 박효삼이 부사령관이었다. 4천 리 긴 여정 끝에 11월 초 선양(瀋陽)에 도착했다. 당시 선양에 모인 조선의용군 대원은 2천5백여 명이였다.

선양에 머무는 동안 조선의용군은 국민당군의 급습을 받았다. 선양을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른 간부들은 기차를 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차는 국민당 폭격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른 수단이 없었다. 이때 무정이 인근 푸순(撫順)에서 무장한 트럭을 한 대 구해왔다. 무정은 측근만을 데리고 트럭을 타고 선양을 빠져나갔다.<sup>44</sup> 간부들과는 단둥(丹東)에서 다시 만났다. 이때가 11월

<sup>42</sup> Department of the Army, “Joint Weekly Analyses,” Staff Message Center, Incoming Classified Message, 11 September 1948, pp. 10~11.

<sup>43</sup> 한국일보 편, 『중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태』, p. 76.

<sup>44</sup> 서희의 증언, 1991년 6월, 중국 시안(西安);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410 재인용.

20일 쫓이었다.

단동에 도착한 조선의용군과 독립동맹 간부들은 소련군정과 교섭을 벌였다. 소련군정은 무장도 안 되고 독립동맹이라는 이름으로도 귀국할 수도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개인 자격으로 기차를 타고 귀국하게 되었다. 기차로 귀국하는 도중 무정에게 결정적으로 모욕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귀국길에 오른 독립동맹 간부들이 무정의 머리에 모포를 씌워 차례로 한 대씩 가격을 한 것이다.<sup>45</sup> 무정의 무장 트럭 탈출 사건에 대한 반감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북한 직업총동맹위원장 출신 서희가 선양 탈출 사건과 함께 증언하는 내용이다. 어쨌든 선양과 귀국 열차 속에서의 사건으로 보아 연안과 내부에서 무정에 대한 인망은 상당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건설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무정은 북한군 내부에서는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었다. 팔로군에서의 혁혁한 전과가 알려져 있었고, 인간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무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sup>46</sup> 연안과 내부에서는 인망을 상당히 상실했지만, 북한군 내에서는 신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정의 입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는 만주파와 소련파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 세력의 숙청 소용돌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 나. 연안파의 분열

연안 시절부터 시작된 연안파의 심한 분열은 연안파가 귀국 후 만주파와의 경쟁에서 패하게 되고, 무정도 김일성 세력으로부터 숙청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연안파는 연안에서 조선독립동맹과 이 조직의 무장 세력인 조선의용군의 틀 내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내부의 이질적인 세력들이 서로 분열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정은 1920년대 국내에서 ML파의 핵심인물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검거를 피해 중국 연안으로 온 최창익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고, 박일우와도 갈등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sup>47</sup> 무정과 최창익은 1923년 9월 서울에

<sup>45</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p. 161.

<sup>46</sup> 최태환·박해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인민군장교 최태환 중좌의 한국전쟁 참전기』 (서울: 공동체, 1989), pp. 47~48.

<sup>47</sup> 서희의 증언, 1991년 6월, 중국 시안(西安);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410 재인용;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각 부서와 위원 씨명 발표: 인민회의 김일성위원장의 보고 승인,” 『북한관계사료집 3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p. 429.



서 조선노동대회 준비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박일우는 지린(吉林)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룡징(龍井)에서 교사를 하다가 연안에 들어가 무정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무정과 박일우, 최창익 사이의 갈등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정풍운동의 와중에 심화되었다. 1942~1943년 사이 중국 공산당은 정풍운동을 전개해 교조주의와 종파주의, 형식주의를 타파하려 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심한 가뭄과 병충해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일본군은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 해양과 육지에서 동시에 승리를 거두기 위해 중공군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했다. 국민당군은 반공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군과 합세해 중공군을 공격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 공산당은 철저한 사상 무장을 통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정풍운동을 벌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정풍운동의 회오리 속에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도 정풍운동을 펼쳤는데, 그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 공산당 식으로 해석해 배우고 마오쩌둥의 사상을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정풍운동은 무정과 박일우, 최창익 사이에 갈등을 가져왔다. 독립동맹의 정풍은 박일우가, 조선의용군의 정풍은 무정이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박일우의 입지가 상승했다. 박일우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그의 위치가 높아진 것이다. 1945년 4월 중국 공산당 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조선인 대표로 박일우가 축사를 한 것은 이러한 위상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 대회는 마오쩌둥의 사상을 중국 공산당의 공식 정치노선으로 채택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렇게 박일우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박일우와 무정은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

무정은 최창익과도 갈등 관계가 되었다. 무정이 이론중시와 실천홀시, 개인이력 등을 문제 삼아 최창익을 비판했기 때문이다.<sup>48</sup> 무정은 최창익과 같이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로 몰아세우면서 화북으로 오기 전 국민당 지구에서 국민당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비판했다. 이에 반발해 최창익은 무정이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조선혁명운동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공격했다.<sup>49</sup> 이러한 상호 비판은 상호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파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최창익과는 조선의용군의 독립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최창익은 조선의용군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된 채 독립동맹의 무력단체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

<sup>48</sup> 염인호, “조선의용군 연구: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 127.

<sup>49</sup> 정병일,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파 역할』 (서울: 선인, 2012), p. 279.

했다. 하지만 1942년 7월 조선의용군사령관이 된 무정은 최창익의 주장을 ‘협애한 민족주의’로 공격하고, 팔로군 산하에 조선의용군을 두려 했다.<sup>50</sup> 중국 공산당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해방운동을 조선 국내로 확대하는 방식이 옳다는 것이었다. 그가 팔로군 포병단장을 하면서 동시에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을 맡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무정의 생각은 일제라는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반파쇼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무정은 조선의용군을 팔로군 산하 부대로 편입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다.

생산활동을 두고도 무정과 최창익은 의견이 달랐다. 무정은 항일투쟁을 하면서도 조선의용군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필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해 감자를 심고 물레를 돌려 실을 잣고 벽돌을 찍어 집을 지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했다. 이런 활동은 중공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창익은 생산활동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군사훈련과 정치 학습을 강화해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sup>51</sup> 이처럼 무정과 최창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을 달리하면서 갈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1943년 1월 조선의용군이 팔로군 소속으로 편입되면서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분리되는데, 이후 독립동맹은 김두봉과 최창익, 한빈이, 조선의용군은 무정이 주도하게 된다. 무정은 1942년 7월 독립동맹 출범 당시에는 6인 상임위원 가운데 하나였지만, 1945년 해방 당시에는 14인 집행위원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해방 전부터 상존하던 이와 같은 계파 갈등은 해방 후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 만주파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융합체로 활동해 정국을 주도한 반면 연안파는 지도부의 분열양상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연안파는 수적인 우위, 교육을 통한 높은 지적 수준, 풍부한 항일투쟁의 경험이라는 매우 유리한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내부 분열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만주파와의 권력투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소련파는 소련의 각 지역에서 공산당 활동을 하던 한인들이 소련군에 의해 선발되어 북한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결속력이 애초부터 생기기 어려웠다. 그래서 소련군정이 마무리되는 1948년 이후에는 만주파와의 개별적인 관

<sup>50</sup>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서울: 나남, 2001), p. 226.

<sup>51</sup>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p. 220.

계 속에서 일부 인물들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은 이용가치가 떨어진 1950년대 중반에는 대부분 숙청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했다. 국내파의 경우도 오기섭과 현준혁, 정달현, 주영하, 김용범 등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들 사이의 연대는 강하지 못했다. 주영하와 김용범 등은 일찌감치 만주파와 연합했고, 오기섭 등은 나름의 국가 건설을 위한 노선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세력을 형성해내지 못했다. 연안파와 비슷한 분열의 양상을 보였다. 민족주의 세력은 소련군정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월남해 수적으로 열세였고, 1945년 말에서 1946년 초 사이 신탁통치 정국에서 소련군정과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면서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민족주의 세력은 소련과 이념을 완전히 달리했기 때문에 소련군정 하에서 생존하기 어려웠지만, 나머지 세력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었다. 그들은 같은 이념적 기반 위에서 국가 건설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공고한 내부적 결속력을 갖고 있던 만주파는 승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연안파와 소련파, 국내파는 패배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연안파 분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연안파의 형성 자체가 다양한 분파의 연합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화합적인 융합이 어려웠다. 무정과 박일우 같은 중국 공산당에 뿌리를 둔 세력, 방호산과 주덕해 등 만주를 거쳐 소련에서 교육받은 부류, 박효삼과 김창만 등 조선의용대 출신들, 최창익과 허정숙 같은 조선공산당 출신 등 여러 세력이 모여서 만든 것이 조선독립동맹이었다. 그런 만큼 완전한 하나의 결합체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둘째는 핵심 지도자 사이의 신뢰 부족이었다. 무정은 최창익과 서울·상하이에서 함께 활동한 경험까지 있었지만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충칭(重慶)에서 넘어온 김두봉에 대해서도 깊이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일우와는 중국 공산당의 신임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였다. 연안파 최고 지도자들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연안파가 해방 이후에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세 번째는 연안이라는 해방구에서 혁명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만주파는 적의 점령지구 한가운데에서 활동하면서 노선 싸움의 겨를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 김일성과 김책, 최용건 등을 철저한 동지의식으로 묶어줬다. 그래서 만주파는 해방 이후에도 강한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안파는 연안이라는 해방구에서 대일 투쟁을 하면서 나름의 훈련과 교육, 정풍운동 등도 동시에 진행했다. 그런 활동이 연안파의 지적 수준을 높여주었다. 그래서 해방 후 중산층과 지식인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연안파의 분열

은 무정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었고, 전쟁의 와중에서 그에 대한 전격적인 숙청이 가능하도록 한 배경이 되었다.

#### 다. 정치적 전략의 부재

무정이 숙청된 또 하나의 원인은 그가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전략에 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세력을 분명하게 결집하고 이를 공고화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능력이 무정에게는 부족했다. 적시에 분명한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을 제시해 정치적 지도력을 강화해나가는 힘도 약했다. 무정은 팔로군에서 많은 전투현장을 누빈 무인이었다. 포병장교로 탁월한 포격능력을 바탕으로 명성을 쌓았다. 이런 명성으로 해방 직후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북한체제는 명성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인민의 지지, 소련과의 관계, 다른 세력과의 권력투쟁 등에 모두 능한 인물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본인 스스로 “이제 군대 가지고 만든 되지를 았소. 한때는 군인만 하려 했는데 이제 정치를 해야겠소”라고 말했지만,<sup>52</sup> 의욕만큼 정치에 능하지는 못했다.

무정이 정치게임에 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안파를 결집했어야 했다. 하지만 연안파를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연안파는 무정을 그들의 지도자로 추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김두봉이나 최창익을 최고 지도자로 받들지도 않았다. 이는 만주파가 김일성을 단일 최고지도자로 내세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박헌영을 지지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부분이었다. 연안을 출발할 때부터 독립동맹의 간부들은 함께 앞으로의 행동 방향에 대해 모여서 논의를 하지도 않았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목표로 했고, 돌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분명한 계획도 없었다.<sup>53</sup> 무정이 연안파 내부의 분열상을 장악, 정리해내지 못한 것이다.

연안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 결속된 힘으로 다른 세력과 연대를 추진할 때 무정의 세력은 더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정이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조선노동당 부부장 출신의 박병엽이 증언하는 것처럼 무정은 군사적인 능력은 탁월했지만 정치적인 전략에는 능숙하지 못했다. 때로는 노선문제를 두고 정적과 논쟁도 하고 담판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합종연횡도 할 수 있

<sup>52</sup>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p. 145.

<sup>53</sup> 위의 책, p. 158.

어야 했는데 무정은 이런 면이 약했다.<sup>54</sup>

무정은 훈련하고 전투하는 데 익숙한 무인기질이었다. 성격도 과격한 편이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 할 당시 ‘사꾸라몽둥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의 급하고 과격한 성격은 잘 알려져 있었고, 잘 고쳐지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자들도 이런 무정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의 포격술이 뛰어나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이러한 특성이 바탕이 되어 ‘남북한 군대는 합쳐야 된다,’<sup>55</sup> ‘소련군은 물러가야 한다’<sup>56</sup> 등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거칠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북한지역 주민들의 호감을 샀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힘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소련과 다른 세력을 주위에 모으는데 장애가 되었다.

특히 소련과의 유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무정이 김일성과의 경쟁에서 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무정은 성장배경이 중국 공산당이었고,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인물들과 동지적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연안파의 기본적인 속성이었다. 북한에 들어간 이후 무정은 소련의 영향력을 곧 확인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성장을 추구했다면 소련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정의 행적에서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김일성을 지원하는 소련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적위대 간부들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나는 전신에 총상이 가득한 사람ियो. 이 같은 나의 경력은 있는 것도 제대로 소개하지 않으면서 누구는 없는 경력까지 만들어서 선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단계의 혁명적 의의를 망각하고 자기 세력의 부식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이것은 장차 당문(黨門)에 큰 재화(災禍)를 준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sup>57</sup> 말한 것은 권력 확대에 주력하던 김일성 세력과 이를 지원한 소련군정 모두를 비판한 것이다.

무정은 근본적으로 소련이 북한을 지배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소련의 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그리고 소련의 김일성 지원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무정은 소련과의 연계를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소련을 멀리하도록 한 것이다.

소련에 대한 무정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는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이는 또한 무정의 비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sup>54</sup> 위의 책, p. 147.

<sup>55</sup> 최태환·박해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인민군장교 최태환 중좌의 한국전쟁 참전기』, p.50.

<sup>56</sup> HQ, USAFIK, “G-2 Weekly Summary,” 6-13 August 1948, p. 33.

<sup>57</sup> 김창순, “무정 장군의 최후와 연안파의 몰락,” 『북한』, 제195호 (1988), p. 103.

다. 1945~1948년 사이 소련군정 기간에는 물론이고, 조선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소련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북한정부 수립이후에도 4~5천 명의 소련고문단이 남아서 북한의 주요부문에 관여하고 있었다.<sup>58</sup>

특히 소련고문들은 북한군에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었다. 모두 3~4천 명 정도의 군사고문이 초기에는 중대급 부대까지 파견되어 있었다. 나중에는 중대급 파견고문은 철수했지만 초기에는 중대급 부대에까지 배치되어 북한군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고위급에서는 군행정과 작전 계획을 관장했고, 하위급에서는 군사훈련과 관련기술을 전수했다. 이 시기에는 북한군에서 필요한 항공기와 대포, 탱크 등 주요 물자들도 모두 소련이 공급하고 있었다. 1949년에는 2억 1천2백만 루블의 차관을 제공하기도 했다.<sup>59</sup> 이런 방법을 통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사회를 소련식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이 같은 환경에서 무정은 소련과의 유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소련 군사고문들의 지휘를 받지 않으려 했다.

동북조선의용군 출신으로 북한에 들어가 인민군 장교가 된 중국 동포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정은 소련고문의 간여를 받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그들 앞에서 자신의 포격술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사고문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한쪽 눈을 감고 엄지손가락을 펴서 목표물을 겨눈 뒤 대포를 발사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한다.<sup>60</sup> 간섭받는 것을 피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자존심을 지키려 한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소련 군사고문들의 간섭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소련 측도 무정과 김두봉 등 연안파를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은 없었다. 연안파에 대한 지원은 북한에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와 무정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정과 소련은 가까워지기 어려웠고, 이는 무정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했다. 하바로프스크 88여단 시절부터 소련군과

<sup>58</sup>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Office of Intellectual Research, "North Korea: Estimat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pril 24, 1950,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NARA, pp. 7~8.

<sup>59</sup> 위의 글, p. 10. 소련군사고문단은 한국전쟁 당시에도 파견되었다. 1950년에는 246명이 파견되어 있었고, 1952년 2월 당시에는 162명이 있었다. 3월에는 152명으로 줄었다. 바르파노브 발레리 니콜라예비치, "6·25전쟁기 소련군사고문단장, 북한 주재 소련대사, 블라지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1900~1980)의 생애,"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15.

<sup>60</sup> 이종호(1926년생, 동북조선의용군 제5지대 대원, 인민군 6사단 대위, 인민군 7군단 112호병원 과장) 인터뷰 (2015. 1. 9. 중국 옌지).

교분을 쌓고, 평양에 들어가서는 치스차코프(Ivan Mikhailovich Chistiakov) 소련군정사령관, 레베데프(Nikolai Georgievich Lebedev) 소련군정 정치사령관 등과 친밀도를 높이고, 심지어 소련 극동군사령부 군사위원 슈티코프(Terentii Fomich Shtykov)를 만나기 위해 연해주까지 왕복하면서 소련군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일성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 VI. 맺는 말

김일성 세력의 반대파에 대한 숙청은 한국전쟁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1946년 초부터 진행된 오기섭 중심의 국내 공산 세력에 대한 견제와 숙청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숙청 작업은 195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권력투쟁의 장은 주로 당이었다. 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력을 형성하고 이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제거하고, 당의 이 핵심 세력이 다른 모든 세력을 휘하에 두고 다스리는 체제를 만들려 하는 것이었다.<sup>61</sup> 말할 것도 없이 그 핵심 세력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파였다.

김일성 체제의 공고화라는 장기 전략의 연속선상에서 추진된 것이 무정 숙청이었기 때문에, 이는 김일성 세력에게 중대 사안이었고, 따라서 그 시기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최적의 시기에 추진해 효과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군에게 작전권을 넘겨준 뒤, 패전의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숙청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으로부터 작전권을 넘겨받은 중국이 효과적 남진전략에 매진하고 있을 때 김일성은 정적 숙청을 단행한 것이다.

무정을 숙청한 이후 북한은 곧바로 사회전체에 대한 혁명적 규율 강화 작업에 나섰다. 1950년 12월 21일의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3차 전원회의 직후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조직위원회 제38차 회의(12월 23일)를 열고, 1951년 1~2월 사이 각급 당단체 열성자회의와 초급 당단체 당원총회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이들 회의에서는 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내린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또,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규율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결의들이 새삼스럽게 다져졌다. 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무정을 숙청하고 내린 지

<sup>61</sup>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from Seoul, Jan 7, 1950), "Current Conditions and Trends within the North Korea Labor Party," p. 7.

시가 “당규률을 약화시키는 온갖 경향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며 당내에서 불순분자, 비겁분자, 이색분자들을 내쫓고 당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 모든 부문에서 당과 정부의 결정이 제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었다.<sup>62</sup> 결국, 무정 숙청 이후 김일성 세력을 중심으로 북한사회를 결속하는 작업이 1950년 말~1951년 초 사이에 북한 전체에서 진행된 것이다.

무정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북한은 허가이, 박일우, 박헌영을 잇따라 숙청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창익, 김두봉 등도 1950년대 중·후반까지 모두 제거했다. 1956년 8월의 ‘8월 종파사건’으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함으로써 해방 직후 만주파와 함께 북한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주역 경쟁을 벌이던 연안파와 소련파, 국내파를 모두 북한정치의 주요무대에서 퇴출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를 ‘승리자대회’로 이름붙이고 반종파투쟁의 완결을 선언할 수 있었다.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형성한 것이다.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 수립은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많은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김일성의 경쟁상대가 될 만한 거물 정적과 그 세력들에 대한 숙청 작업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연대기적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무정을 숙청한 뒤, 그 다음으로 허가이, 이후 박헌영을 위시한 남로당파를 제거했다. 그 후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통해 최창익을 비롯한 연안파를 숙청했으며, 1967년에는 박금철 중심의 갑산파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무정 숙청은 지금까지도 그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김일성 유일체제 수립의 중요한 시발 지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무정의 숙청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유일지도체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초기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한 북한정치사의 주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접수: 4월 27일 ■ 심사: 5월 13일 ■ 채택: 6월 16일

<sup>62</sup> 『조선전사 26』, pp. 239, 242; 『조선전사 27』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79.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고봉기.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서울: 천마, 1989.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5』. 서울: 청계연구소, 1986.
- 김창순. 『역사의 증인』. 서울: 한국아세아반공연맹, 1956.
- \_\_\_\_\_. 『북한15년사』. 서울: 지문각, 1961.
- 박갑동 저. 구윤서 역. 『한국전쟁과 김일성』. 서울: 바람과 물결, 1988.
- 박병엽 구술. 유영구·정창현 엮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서울: 선인, 2010.
- 서대숙 저.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90.
- \_\_\_\_\_. 현대사연구회 역.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대구: 화다출판사, 1985.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서상문. 『모택동과 6·25 전쟁: 파병 결정과 개입동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스칼라피노·이정식 저.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2』. 서울: 돌베개, 1986.
- 심지연. 『조선신민당 연구』. 서울: 동녘, 1988.
-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서울: 나남, 2001.
- \_\_\_\_\_.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91.
- 정병일.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과 역할』. 서울: 선인, 2012.
- 조규하 등. 『남북의 대화』. 서울: 고려원, 1987.
- 『조선전사 26』.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조선전사 27』.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국내편: 1951~195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서울: 고려원, 1990.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 최태환·박혜강. 『젊은 혁명가의 초상: 인민군장교 최태환 중좌의 한국전쟁 참전기』. 서울: 공동체, 1989.
- 하기와라 료 지음, 최태순 옮김. 『한국전쟁: 김일성과 스탈린의 음모』. 서울: 한국논단, 1995.
- 한국일보 편.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태』. 서울: 한국일보사, 1991.
- 한재덕. 『김일성을 고발한다』. 서울: 내외문화사, 1965.
- Appleman, Roy E.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GPO, 1961.

### 2. 논문

- 기광서. “해방 후 김일성의 정치적 부상과 집권과정.” 『역사와 현실』. 제48권, 2003.
- 김용현. “북한 인민군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만주사변~한국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창순. “무정 장군의 최후와 연안파의 몰락.” 『북한』. 195호, 1988.
- 바르파노브 발레리 니콜라예비치. “6·25전쟁기 소련군사고문단장, 북한 주재 소련대사, 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라주바예프(1900-1980)의 생애.”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시바타 미노루. “김일성의 야망.” 고봉기. 『김일성의 비서실장 고봉기의 유서』. 서울: 천마, 1989.
- 염인호. “조선의용군 연구: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종석. “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 『군사』. 제44호, 2001.
- 한홍구.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3. 기타자료

- 강상호. “내가 치른 북한 숙청 (7).” 『중앙일보』. 1993년 2월 22일.
- 김성호(중국 연변대학 한국역사연구소장) 인터뷰. 2015.1.12. 중국 현지.
-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 과업(1950.12.21.).”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_\_\_\_\_.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12.21.).”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박충걸. “비운의 혁명가 무정의 일생.” 『신동아』. 1993.3.
-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각 부서와 위원 씨명 발표: 인민회의 김일성위원장의 보고 승인.” 『북한관계자료집 3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 이종호(1926년생, 동북조선의용군 제5지대 대원, 인민군 6사단 대위, 인민군 7군단 112호 병원 과장) 인터뷰. 2015.1.9. 중국 현지.
- 장학봉. “장학봉.”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Department of the Army. “Joint Weekly Analyses.” Staff Message Center, Incoming Classified Message, 11 September 1948.

\_\_\_\_\_. “Joint Weekly Analyses.” Staff Message Center, Incoming Classified Message, 15 August 1948.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Research for Far East Office of Intellectual Research. “North Korea: Estimat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April 24, 1950,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NARA.

Foreign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Department of State Relating to the Internal Affairs of Korea. (from Seoul, Jan 7, 1950).

“Current Conditions and Trends within the North Korea Labor Party.”

HQ, USAFIK. “G-2 Weekly Summary.” 6-13 August 1948.

## Abstract

### The Political Causes for Purging Moo Jung and His Reactions

*Mun-Suk Ahn*

North Korea made public that Moo Jung was punished for not carrying out the military order of defending Pyongyang and the illegal executions during the Korean War. However,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defend Pyongyang after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because the North Korean troops were on a squallish retreat at the time. His summary executions of deserters were not in question since Kim Il-sung already ordered to execute them on the spot. On balance, it seems that the Pyongyang regime purged Moo Jung to shift the responsibility of defeat to him and to liquidate Kim Il-sung's longtime political rival.

In terms of Moo Jung's reactions, it is said that he tried to gather supporters in the army and to subvert the Kim Il-sung regime. Still, the substantial evidence for it was not found. Rather, there are three causes for his helpless reaction to the purge. First, he lost confidence in the Yanan faction to some degree after he left behind his colleges during the Kuomintang's attack in November 1945. Second, deep divisions were found in the Yanan faction and they hindered Moo Jung from reacting effectively. Third, he was not equipped with a broad outlook to take an overall look at the political situation since he was brought up in the army. Against his backdrop, the purge of Moo Jung was carried out and it was a starting point of the subsequent purges of Hegay and Pak Hon-yong and the Kim Il-sung monolithic system.

**Key Words:** Purge of Moo Jung, The Yanan Faction, Subversion of the Kim Il-sung Regime, the Kim Il-sung Monolithic System, Not Carrying out Military Order, Illegal Summary Execution

